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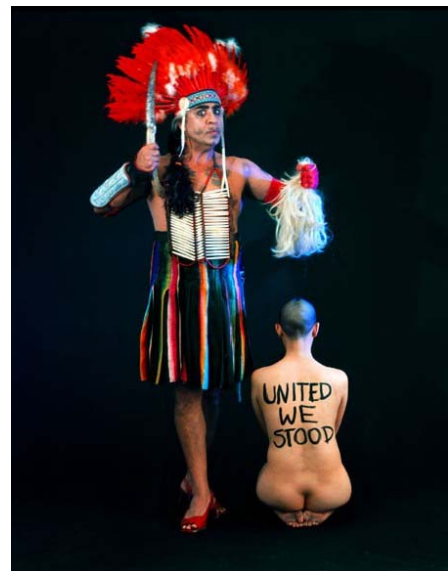
■ 멕시코라는 거울 앞에서

기예르모 고메스 페냐

I

1978년 나는 멕시코시티를 떠났다. 우리 세대가 ‘미래의 땅’이라고 생각하던 캘리포니아에서 예술을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나는 히피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고, 펑크족이 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22살의 어정쩡한 반항아이자, 예술가, 작가였는데, 멕시코의 숨 막히는 제도권 문화 속에서는 숨 쉴 공간을 찾을 수 없었다. 멕시코에서는 예술·문학 카르텔이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엄격한 종교적인 방식으로 강고하게 조직되어 있었다. 그 카르텔의 정점은 ‘고급문화’와 ‘멕시코의 정체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던 옥타비오 파스(Octavio Paz) 였다.

당시 멕시코의 정체성이란 정적인 구성물로, 영토와 언어에 밀접하게 묶여 있었다. 멕시코인이란 멕시코에 살면서 멕시코인답게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의미했다. 그게 전부였다. 멕시코인이 되는 다른 대안적인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생김



200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신 아스테카 의식’이라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기예르모 페냐 고메스

새와 피부색, 심지어는 인종적으로 상이한 요소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혼혈은 공식적인 언명이자 거대 서사일 뿐이었다.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식민지배적 강간과 문화적 전제정치의 결과물, 즉 에르난 코르테스와 말린체의 자식들로 영원히 역사적 상흔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멕시코에 원래 거주하던 수백만의 원주민들은 우리 역사와 사회 밖에 존재하는 신화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려졌다. 정부의 온정주의적 원주민주의자와 지식인들은 난해한 용어를 사용하여, 원주민을 관광부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공동 후원을 받아야 할 유아적이고 화려한 색상의 종족인양 격하시켰다. 원주민의 사진, 풍속, 전통은 ‘우리’ 것이지만 비참, 실직, 절망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당연하지만, 많은 이들이 떠남을 선택했다.

국경의 다른 쪽으로 이민을 감행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배반자이자 믿지 못할 인간이 되었고, 멕시코의 잊혀진 또 다른 고아인 포초[Pocho: 미국화한 미국 거주 멕시코계]의 계열에 들어갈 팔자가 되었다. 그렇게 국경을 넘었을 때, 나는 탈멕시코화 혹은 포초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을 무의식중에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순진하게도 금기로 여기는 일에 가담했다. 치카노와 어울렸고, 포초의 언어인 스펡글리쉬를 사용하여, 양국에서 악마시된 우리들의 혼종적 정체성—우리 세대가 아는 유일한 정체성—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단 국경을 넘게 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뫼비우스의 띠를 걷는 것처럼 항상 ‘다른 쪽’에 있었다. 즉, 멕시코 쪽의 예전 동료들은 내가 더 이상 ‘진짜 멕시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그때마다 마치 작고 신비한 우리 같은 무엇인가가 내 내부에서 영원히 부서져버렸다. 오년간에

결친 귀국 끝에, 그들의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는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으로 각인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쪽 미국에서도 ‘조난자’(이 폭발성 강한 비유를 옥타비오 파스가 논쟁적인 에세이에서 사용해서 치카노 지식인들이 격노했다.)가 되어버렸다.

II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와 멕시코의 제도혁명당(PRI)은 자기방어적 국가주의라는 완고한 체스게임에 빠져있었다. 양쪽 모두 국경을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딱 막힌 직선으로 보았을 뿐, 퇴비우스의 띠와 같다고는 상상조차하지 않았다. 미국에게 국경은 단테식 지옥인 제3세계가 시작하는 무시무시한 출발선이었고, 그래서 “국가 안보의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이 되었다. 멕시코에게 국경은 강력한 그링고[gringo: 멕시코인들이 미국인을 지칭하는 표현]에 대항하는 멕시코성의 외적 한계선을 나타내는 개념적 장벽이었다.



워싱턴에서 일어난 치카노 운동

누구도 거대한 멕시코 이민의 정치적·문화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다. 좀더 관대한 순간에도 멕시코는 우리 이민자들을 미국 이민국의 자비에 맡겨진 어쩔 수 없는 불법이민자로 여겼고, 예외가 없지는 않았으나 일반적

으로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치

인들의 국가주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손은 언제나 워싱턴으로부터 빌린 외채에 묶여 있었고, 북쪽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몰래 봉사하느라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들은 자기들 편의대로 우리를 미국의 사회악과 재정적 고통의 일차 원인으로 여겼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랬다. 간단히 말해, 우리를 탈국가적 범죄인, 갱조직원, 마약상, 헐리웃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멕시코 악당, 일자리 도둑으로 인식했고, 또 그렇게 대접했다. 우리가 떠났다는 사실에 한 나라는 안도했고, 다른 나라는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다행하게도, 가톨릭 신자가 된 이래로 우리는 발을 딛고 있는 탈국가적 림보를 금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 지구상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당한 삶을 영위하며 멕시코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는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남쪽에서 멕시코 ‘이방인’으로 산다는 의미는 매일 깨어나, 모든 불평등에 맞서는 행위로서 멕시코인으로 남기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저항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단순히 멕시코인으로 보이는 것이나 공공연히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반항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류 문화를 상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면, 최소한 역설적이라 하겠다. 우리는 어느 곳이나 있었고 아무 곳에도 없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큰 ‘소수종족’이자, 정치권력 측면에서는 가장 미약한 종족이었다. 우리는 논할 나위 없는 경제의 중추이면서도, 앵글로의 상상 속에서는 어느 장소에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낭만적 배경이자 선호하는 음식이고, 동시에 서사시적 두려움이었다. 마치 고질라로 변형을 일삼는 마리아치인양.

치카노와 다른 라티노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외로움, 향수, 무력감으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치카노들은 내게 나 자신을 예술가와 시민으로 생각하는 다른 방식을 가르쳐주었다. 나는 그들을 통해 내 예술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체성을 탐구하고 재탄생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멕시코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런 발견 덕분에 내 자신을 영원한 재창조 과정 속에 있는 치카노/라티노 문화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신화적 고향으로 돌아가길 염원하는 향수에 젖은 이민자가 아니었다. 나는 치카노/라티노 운동의 기본적인 논리를 학습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을 살기 시작했고, 치카노라는 상표를 통해 새로운 삶의 모순과 널리 선전된 ‘소수 종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화되는 초기 과정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이론가들이 말하는 재영토화 작업을 수행했다.

그렇게 나의 비약적인 치카노화 과정이 시작됐다.

III

10년 동안 치카노 민족주의자들과 강경론자들은 내게 값비싼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체성 조사와 혈통 검사를 철저히 받으라고 요구했다. 나는 ‘귀속’에 대한 욕망이 조바심보다 강했기에 이 ‘개종’을 금욕적으로 기다렸다. 이 시간 동안 존재적 고통에 괴로워했다.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열정적으로 행위 예술을 창작했고, 내면 탐구에 집착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를 시민으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다양한 층위의 내 정체성을 어떻게 규명할까? 치카노화의 정도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는 무엇일까? 미국에서 정치화된 멕시코인으로서, 혹은



미국 내 라틴아메리카 이주자들의 시위모습.

플뿌리 조직과 대의에 헌신한 시간일까? 나는 완전한 치카노가 되었을까? 그렇다면 그건 정확히 언제부터일까? 경찰에 말대답했다고 체포됐을 때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를 통해 멕시코와 얽힌 내 땃줄이 영원히 끊어졌을 때일까? 과거 멕시코 동료들이 나를 타인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일까?”

지난 24년간 도보로, 차로, 비행기로 피투성이 국경을 넘나든 끝에,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언제 시작했는지가 중요할까 하고 반문해 본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머나 먼 멕시코 과거와 치카노 미래 사이의 공간이 광대하고, 내 정체성은 그것을 자유롭게 가로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결국, 양국에서 부인한 완벽한 시민권을 나에게 부여한 것은 내 예술과 문학이었다. 나는 나만의 개념적 국가를 만들었다. 내 행위예술과 글 속의 ‘뒤집힌 지도’에서, 치카노와 라티노는 자유로운 언어인 스펡글리쉬를 사용하는 주류문화가 되었고, 단일문

화인 앵글로는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문화를 기꺼이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내 나라’의 공공 삶에 참여할 수 없는 점점 쪼그라드는 소수 종족이 되었다. 행위예술 동료들과 나는 극장이나 박물관에 먼저 ‘모든 이민자와 유색인’을 초대하고, 다음으로 ‘모든 이중언어자와 인종간 결혼한 사람’을 초대하고 마지막으로 ‘영어만 사용하는 앵글로’를 초대했다. 우리는 관객을 ‘우리 아메리카’의 일시적 외국인 혹은 ‘이국적 소수 종족’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가상의 중심을 취하고 주된 문화를 가장자리로 몰아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인식론을 ‘전도된 인류학’ 그리고 ‘치카노 사이버 핑크 예술’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내게는 사회적 사실주의가 유머러스하게 과장된 형태일 뿐이었다.

V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몇 가지 신기루를 만들어냈다. 미국-멕시코 국경이 사라져 물자, 자본, 글로벌 미디어, 법인회사 등이 자유로이 교류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도 그 중 하나였다. 불행하게도 사람, 아이디어의 이동, 특히 남에서 북으로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력, 인권, 환경에 대한 존중은 애초부터 교역협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확실한 사실은, 양국 정부가 북에서 남으로 가는 국경 개방에는 호의적이었고, 남에서 북으로 가는 국경은 엄격하게 감독했다는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과 함께 국경에는 예전의 무시무시한 베를린 장벽을 닮은 불길한 금속 장벽이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오만하고 전제적인 태도는 ‘수문장 작전’(Gatekeeper Operation)과 같은 국경 강화 정책, ‘영어만 사용하기 운

동'(English-Only)과 같은 극단적 조치와 일치한다.

이 새로운 장벽은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지닌 본색을 드러내고, 그들이 주장하는 국경 없는 수사학이 허구임을 증명한다. '글로벌 프로젝트'를 만든 북쪽 국가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제 동유럽의 과거 공산주의국가는 악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대상이 남반구,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바뀌었다. 1996년의 이민법과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의 187(Proposition 187)은 명백히 유색인종 이민자들을 겨냥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구체화했다. 다른 서양 국가들도 이 선례를 따라 자국 내 이민자를 범죄시켰다. 결국, 반이민을 위한 공동 노력만이 세계화라는 허구적 구조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줄이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국경 양쪽의 예술가와 지식인들은 그들에게 진정 필요로 한 것이 '자유로운 예술 협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1995년에서 1998년까지 정부 기관을 앞지르는 양국적 인(bi-national) 문화 선도단체들이 국경 양쪽에서 생겨났다. 한 예술인의 선언을 인용하자면, 우리의 주된 목적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생각들, 비상업적인 예술작품과 문학의 지속적인 교환"이었다. 양국에서 공상적 예술가와 문화 흥행가들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만든 수사적 자유로를 이용했고, 네트워킹과 합작을 위해 디지털기술이라는 값비싼 자유를 사용했다. 한동안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 듯 느껴졌다. 실험적 멕시코 예술, 스펡글리쉬 시, 스페인어 록(rock), 국경문화, 치카노 문화를 '힙'으로 간주했고, 미국 문화 환경에서 진지하게 수용했다.

그러나 양국의 문화권력 중개인들은 공상적 아이디어보다는 재정적 이익과 '국제적' 예술이라는 과대광고에 더욱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명백해졌다. 경계지대는 이제 '예술 전시장'이 되었고, 정부지원을 받은 창작이 참여 예술을 대체했다. 또 '경계

패러다임'이 비엔날레와 국제 페스티벌을 위한 유행 담론이나 주제로서 다문화주의를 대체했다.” 마킬라도라 양식의 예술을 제공하는 새롭게 나타나는 멕시코의 나프타예술(NAFTArt) 시장은 오로지 외국 소비만을 위해서 생산됐다. 그것은 새로운 취향과 도발적인 문화에 굶주린 미국 상업 예술 시장에서 수집가, 예술기업가, 문화 복화술사의 이목을 끌었다.

물론 양국적인 파티로부터 가장 신랄하고 비판적이고 대담한 목소리들이 나왔다. 그러나 크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파티를 주차장에서 열었고, 가장 괜찮은 디제이들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VII



2001년 2월 부시는 대통령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멕시코를 선택했다. 당시 멕시코 대통령 비센테 폭스는 과나후아토에 있는 자기 농장 산크리스토파로 부시를 초대하여, 이민문제 등 양국현안에 대해 획기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냈으나 결국에는 말의 성찬으로 끝나고 말았다. 폭스는 최근에 발간한 회고록에서 부시는 승마를 무서워하는 무늬만 카우보이라고 비꼬았다.

2001년 미국과 멕시코 관계는 양국 대통령에게 최우선적인 현안이였다. 적어도 양국 대통령은 그렇게 말해왔다. 멀리서 보면, 폭스와 부시는 서로 폭 빠져 있는 듯 보였다. 그들이 함께 할 때면, 사업 얘기는 물론, 장화, 가축, 별난 국경문화에 대해 각자의 언어로 주고받기를 좋아했던 19세기 농장주처럼 행세했다. 멕시코인과 치카노는 조심스레 기다렸고, 권력을 쥔 이 새로운 카우보이들이 국경의 관계를 증

진할 전례 없는 제안들을 제시할 때 쌍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도 가장 파격적인 일은 미국에 있는 3백만 멕시코 불법이민자를 양성화한다는 방안으로, 제대로 된 방향이라는 데는 의심할 바 없었다. 그러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큰소리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정말로 친구였을까? 조지 부시가 진심이였을까? 아니면 자기 당의 생존을 위해 라티노 표를 끌어 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호소하려고 했던 걸까? 그러나 결국 골수 공화당원들은 이민자들에게 극도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 부시의 멕시코 비밀 아젠다는? 물, 전기, 석유 때문에? 미주자유무역지대(ALCA)를 성사시키기 위해 강력한 동지로 삼으려고 했을까?

멕시코에서 정치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폭스 대통령의 선의, 메시아적 성격, 미디어 감각을 합친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반대 의견이 모든 방향에서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새로운 법안을 지속적으로 저지한 멕시코의 제도혁명당(PRI)의 수동성과 공격성으로 폭스는 움짱달짝할 수 없었다. 그가 전쟁을 선언한 부패한 사법관들과 마약상들은 물론이고 우파적 성향의 여당 인사들까지도 공격했다.

폭스는 전보다 외롭고 냉정했다. 멕시코시티의 중심가의 낙서에는 “폭스가... 너를 속인다”라고 적혀있다. 시민과의 짧은 밀월 관계는 끝이 났고, “모든 멕시코인을 위해” 추진한 즉각적 경제 부흥을 이룩하겠다는 대책 없는 약속 또한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다. 얹친 데 덮친 격으로, 9·11의 비극이 발생했고, 부시 정권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외교정책과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 만화영화 <우주가족 젯슨>의 카펫이 <고인돌가족>을 날려버렸을 때, 부시의 멕시코 친구들은 질 낮은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의 먼지 날리는 배경 속으로 사라졌고, 부시와 폭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이루는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는 멕시코인

그의 동료들이 계획한 수많은 국경 프로젝트는 기약 없이 연기되었다.

VIII

‘국가 통합’,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불관용, 애국주의, 과민증, 고립주의 같은 무서운 문화가 우리의 사적·공적 삶에 깊숙이 침투해, 우리의 이웃인 타자들과 맺은 불안정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최고 경계태세’ 상태의 미국으로 인해 9·11이후 양국 국경은 훨씬 강화되었다. ‘의심스런 (갈색 피부) 이민자들’을 체포하여 무기한 보호센터에 구금하였고, 국경 경비대는 증원되고 폭력성은 심화되었다. 한때 국경은 물자와 서비스를 위한 출입구로서 자유무역론자들이 환호했지만 이제는 ‘잠재적 테러리스

트들의 출입문'이 되었다. 또한 문화와 사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된 과거 정부의 초고속 정보망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방대한 감시시스템이 됐다.

이런 가미가제식 조치로 인해 양국에 중요한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의 경제는 사실상 파괴됐고, 멕시코 불법노동자의 25%가 쓸쓸히 귀향하였으며, 양국의 사업가와 관광객이 대폭 감소했다. 최근 제임스 클리포드(James Clifford)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얼마동안 미국정부가 이 움츠려든 국경을 유지하느냐 하는 거야. (드라마틱하게 잠시 쉬고) 그리 오래 못가. 현대 정치에서는 사업 이익이 두려움을 훨씬 앞지른다는 걸 잊지 말자고.” 나는 그가 옳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IX

폭스대통령이 멕시코에서 직면한 수많은 도전에 덧붙여 국경의 이편에서 생긴 괴로운 일까지 보태졌다. 양국의 경제를 문자 그대로 지탱하고 있는 미국 내 멕시코인들, 탈멕시코인들과 지속적인 존중의 관계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의 이행 건이었다. 부시와 마찬가지로 폭스 또한 우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두 집권당이 계속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이기적인 희망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 대통령과 그들 배후의 괴상한 인간들이, 탈국가적 멕시코인들이 양국을 위해 매우 유용한 역할, 즉 국가 간 중개인과 사업가, 비공식적 움부즈맨이나 외교관, 기록작가나 상호문화 해석가 같은 일을 감당해 내리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화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경계심이

많다. 우리는 멕시코 정부가 자행한 “버림”의 전통과 미국이 9·11 이후 공식화한 제도적 인종차별주의 역사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 게다가, 비정치적인 사람들을 포함해 대부분 멕시코계 미국인은 로스 피노스[멕시코 대통령 청사]와 워싱턴 사이의 역사적 관계가 우리가 미국에 거주하게 된 데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온 많은 고아들처럼 우리는 무지개 끝의 황금을 찾아 여기에 와서는, 고생과 시민 경비대, 차별적 이민법에 맞닥뜨렸을 뿐이다. 우리는 장애를 극복했다. 우리는 치카노, 혹은 스페인어식 넓은 의미로 아메리카노가 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과거와 미래, 남과 북, 기억과 정체성, 원주민 아메리카와 첨단기술, 예술, 정치 간의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설했다. 그리고 이렇게 수작업으로 건설된 다리는 글로벌 미디어와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만들어낸 수사적 의미의 다리보다 훨씬 더 미국과 멕시코 관계에 유용하다.

우리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우리는 노스카운티의 샌디에고에서 플로리다의 홈스테드까지, 이스트 로스엔젤레스에서 이스트 할렘까지, 산안토니오에서 코디악섬까지 펼쳐진 인구군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문화적 동화가 됐든 치카노화가 됐든 간에 3천5백만 인구를 이루는 탈국가적 멕시코인들로, 주로 말없이 미국의 문화, 경제, 공공생활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고 있다. 우리는 적어도 천만에 이르는 다른 라티노들과 한목소리를 내며,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이런 우리를 담은 새로운 지도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즉, 사실상의 국가로 합법적 라티노이든 아니든, 모든 라티노가 다른 아메리카인처럼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 즉, 우리들의 모순과 극단적인 차이가 그저 인식되고 묵인되는 곳이 아닌 격려

받는 그런 이상적인 장소를 요구한다.

이 ‘다른 라틴아메리카’는 제1세계 내의 거대한 제3세계의 일부로 캐나다와 호주의 인구를 합친 인구보다 더 큰 인구를 지니고 있으며, 스펡글리쉬 시인, 힙합 예술인, 퓨전 음악가, 급진적인 지식인, 행위예술가, 독립 영화제작자 등에 의해 현재 함께 상상되고 그려지고 있다.

2002년 현재 미국과 멕시코 양국의 국가성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인 개념은, 국경을 둘러싸고 생긴 상처의 직접적 결과물인 다원성, 이중성, 인내, 자주관리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풀뿌리 민중들이 스펡글리쉬로, 절대적이지도 대립적이지도 포함하지 않고는 미래에 대한 민주적인 전망은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남쪽이 북쪽에게 상기시키는, 새로운 북쪽이 남쪽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다. 국경 없는 국가의 유령 시민들로서 우리는 20세기식 용어 리스트의 의미를 곧 재정의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이민자, 이방인, 외국인, 소수종족, 이산, 국경, 아메리카인 같은 단어들은 우리의 새로운 조건, 정체성, 딜레마를 설명하는 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X

이년 전 멕시코와 미국이 마침내 이중 국적을 인정했을 때, 나와 동료들은 이중 국적을 취득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잭팟을 터뜨렸다. 그린카드를 황금카드로 바꿨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시민의 삶을 거쳐 양국에서 공히 완전한 시민으로 거듭 태어났다.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두 나라가 자유 교역이라는

유혹적인 수사학에 의존한다면, 모든 멕시코계 미국인이 이중 시민권자가 되어야 하고, 양국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밝은 미래를 밝히는 일에 진정한 동반자로 우리를 대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당연했다.

잠시, 거울 속의 이미지는 얼어붙었다. 나는 부시와 애쉬크로프트[미 법무부 장관]가 생각하는 미국과 ‘고국’에 대한 개념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그들’의 지도에서 ‘우리’를 위한 장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서라연 옮김]

기예르모 고메스 페냐(Guillermo Gómez-Peña, 1955~)는 멕시코계 미국 이민자로 행위예술가이다. 에세이집 8권을 출판하고 시도 발표했는데, 그의 작품의 중심 테마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문화와 갈색 피부의 정치학이다.

* 이 글의 원제는 ‘On the Other Side of the Mexican Mirror’이며, 출처는 고메스 페냐의 공식 홈페이지 <http://www.pochanostra.com>이다. 지면 관계상 원문의 4, 6은 번역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